

반갑지 않은 명절… 中企 절반 “자금사정 우울”

중기중앙회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경기 침체·인건비 등에 예년보다↓ 47% “돈 없어 남품대금 결제 연기” 부족한 자금조달, 30% “대책 없어” 상여금 평균 66.6만원·휴무 4.6일

추석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낙网络游戏 곳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중소기업들의 올 추석 상여금은 평균 67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추석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갖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1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38.6%가 ‘곤란’, 13.3%가 ‘매우곤란’ 등 응답자의 51.9%가 자금 상황이 어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왼쪽 네번째)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추석대비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렵다고 답했다.

특히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 비율은 2016년 45.5%, 2017년 46%를 각각 기록한 뒤 올해엔 전년보다 5.9%포인트(p) 더 늘었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39.7%에 달해 ‘원활(매우원활 포함)’이라고 답한 8.4%를 제외한 91.6%의 중소기업은 사실상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계다가 매출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밝힌 곳이 많았다. 실제 설문 결과 ‘곤란’ 업체는 매출 10억원 미만이 67%인 반면 50억~100억원 미만은 47.2%, 200억 이상은 33.1%였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출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선 ‘판매 대금 회수 지연’(32.1%), ‘원자재 가격 상승’(29.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 당시엔 23.1%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꾹았지만 올해엔 이보다 응답 비율이 6.8%p나 늘었다. 시중은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35.1%로 ‘원활’(12.2%) 하다는 답변보다 22.9%p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곤란’ 비율은 30.6%였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날 중소기업 금융지원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원활하게 추석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중기부산하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보중앙회 외에 시중은행에선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올해 추석에 평균 2억87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9400만원(33%)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자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납품

대금 결제연기’가 47.6%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 조기 회수’가 43.1%로 그 뒤를 이었다.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이 부족한 이들 중소기업이 다시 납품대금 결제를 미뤄 더 작은 소기업들에게까지 자금 부족 압박이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엔 사채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책없다’는 기업도 29.1%였다.

추석 상여금은 정액지급시 1인당 평균 66만6000원, 연봉제 등을 통해 정률지급 시엔 기본급의 51.9% 수준이었다. 평균 휴무는 4.6일이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 보다 다소 나빠졌다”면서 “매출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정책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 ENM 태국 시장개척단 참여 中企 모집

20곳 모집… 이번 달 21일까지 접수

CJ ENM 오쇼핑부문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홈쇼핑 시장개척단’이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다. 이에 CJ ENM 오쇼핑부문은 이번 달 13일부터 21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 중소기업 20개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태국은 떠오르는 아세안 지역의 신흥국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진출하고 싶어하는 국가 중 하나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2012년 태국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 지엠엠 그램미(GM Grammy)와 손잡고 합작법인 GCJ를 설립해 운영하며 현재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있다.

오는 10월 진행되는 ‘2018 태국 홈쇼핑 시장개척단’에서는 참여 중소기업들이 태국 방콕 현지에서 MD들과 1:1 수출상담을 벌이며 실질적인 해외판로개척의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상담회에는 CJ ENM 오쇼핑부문의 태국 법인인 GCJ MD



지난 6월 말레이시아 홈쇼핑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모습. /CJ ENM

와 태국 현지 유통업체 바이어 등 총 30여 명의 상품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참여 기업 담당자들에게 태국의 시장 현황과 수출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담회 이후에는 GCJ의 TV홈쇼핑 방송 스튜디오 및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 태국 현지의 홈쇼핑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콕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명 유통 시장을 돌며 현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태국 홈쇼핑 시장개척단’에 참가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CJ ENM 오쇼핑부문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번 달 21일까지 안내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 1차 치료제로 추가 임상

한미약품 미치료 환자 140명 대상

한미약품이 개발한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의 1차 치료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추가 임상이 시작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Nasdaq GS: SPPI)은 이와 관련한 2개의 코호트 연구에 새롭게 돌입했으며, 최근 첫 환자 투여가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구는 EGFR 또는 HER2 엑손 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포지오티닙의 확장된 임상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이에 따라 포지오티닙 임상 2상은 치료 받은 적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2개 코호트 연구와, 이번에 추가된 2개 코호트 연구 등 총 4가지로 구성되며, 캐나다와 유럽 등으로 연구가 확장될 예정이다.

임상 참여기관 중 하나인 UCLA 헬스 메디컬센터의 조나단 골드만 박사(혈액학 및 종양학 부교수)는 “액손 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포지오티닙의 확장된 임상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상온서 4시간 만에 굳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아주산업 ‘콘크리트 랩’ 첫 선

아주그룹이 상온에서도 빠르게 굳어 4시간만에 거푸집까지 제거할 수 있는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아주그룹 계열사인 아주산업은 1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상온에서도 압축강도 150MPa(1cm²당 1.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구현할 수 있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조성물인 ‘콘크리트 랩’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콘크리트 랩’의 색상은 회색과 백색 2종으로 20kg짜리 소포장 형태로 자체 영업망과 외부 전문유통망을 활용해 판매될 예정이다.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는 압축강도가 100~200MPa에 달해 일반 콘크리트(21~27MPa)보다 5배 이상의 압축강도를 갖는 특수소재다.

또 콘크리트에 고성능 감수제, 강섬유 등을 혼합해 유연성이 뛰어나고 내구성도 강해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콘크리트가 양생하는데 12~24시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해 콘크리트 랩은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빠른 탈형이 가능하다.



아주기술연구소 윤기원 소장(맨 오른쪽)과 직원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상온양생 초고성능 콘크리트 조성물인 ‘콘크리트 랩(Concrete Lab)’을 활용해 만든 인테리어 소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아주기술연구소 윤기원 소장은 “고온증기양생 과정을 필히 거쳐야하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별도의 고온양생시설 없이도 상온에서 150MPa 이상으로 압축강도를 극대화하고 4~6시간만에 탈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라면서 “앞으로 더 얇고 강한 패널 등 건축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콘크리트 랩은 각종 건축물 내외장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압류를 우려해 노란우산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했다. 하지만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소상공인들은 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체권자 등으로부터 빼앗기거나 차단되는 노란우산공제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압류방지통장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에서 우선 개설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사업 재기를 위해 2007년 9월 출범한 공제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압류를 우려해 노란우산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했다.

하지만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소상공인들은 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IBK기업銀서 가입

중기벤처부-중진공 전지점 가능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IBK기업은행 600개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엔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전국에 있는 기업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하게 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매칭해 5년 근속한 청년에게 3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는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